

구효서- 『비밀의 문』, 소멸과 생성의 초월과 몸

金 亨 子*

차 례

- | | |
|------------------------------|----------------------------|
| 1. 몸·영혼·정신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 3.1. '아육왕 상전'과 '몸'의 사불화 |
| 2. 인간의 몸의 긍정과 부정의 한계 | 3.2. 비밀집단 '회좌'의 '소나'와 집단난교 |
| 3. 『비밀의 문』(구효서)의 '몸'과 비밀의 회로 | 4. 파괴의 이데올로기와 몸 |

1. 몸·영혼·정신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 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서 행해지는 무수한 언행들에서 몸과 영혼, 또는 정신의 문제들은 어떻게 그 의미들을 이해해야 하며 개념들을 포착해야 하는 것인가? 철학사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영혼과 육체, 정신의 문제들을 거론해 왔고 그 존재 규명을 위해 설전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명징한 해명을 내린다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인 채 미해결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흔히 인간의 몸을 ‘집’이라고 하고,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영혼이라고 하여 영혼은 곧 몸과는 다른 것이며, 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몸안에 있는 것이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몸 속에서만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영혼이 회상작용이나 상상 또는 환상작용을 할 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이동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영혼은 인간의 몸을 떠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고, 여기와 저기, 거기, 심지어는 초월적 공간까지를 넘나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회상이나 기억, 환상 또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 진다는 사실이다.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통하여 체현되기 마련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넘나들기 가능한 영혼은 결코 몸과의 상호관계 없이 어떠한 작용도 하기 어렵다. 기억, 상상, 사유 등 흔히 정신작용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몸이라는 공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 같으나 결국은 감각적인 표상과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이 몸 속에 고정적으로 넣어 둘 수 있는 기물은 아니다.¹⁾

몸과 영혼의 ‘분리’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다음의 세 가지 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영혼이 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유심론적 입장이다. 자신의 욕구와 의지에 따라 몸의 작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몸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물론적 견해이다. 홀몬과 체액 분비의 과다에 따라 인간의 성격형성이 이루어지고 뇌의 손상이 정신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셋째로는 영혼과 몸이 서로 평형적인 관계를 가지며 상호작용한다는 이원론적인 입장이다.

철학적 사유가 엄격한 이원성의 구조로 이루어 질 때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영혼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영혼의 정체 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몸이 무엇인지를 개인이 자기체함과 의식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 영혼과 정신의 문제는 먼저 몸을 통해서 몸과 함께 파

1) C.A.van Peursen, *Body, Soul, Spirit*(Oxford Univ. Press, 1966), 손봉호·강영안 옮김, 서광사, 1985), pp.12-24.

2) C.A. van Peursen, 위의 책, pp.93.

악될 수 있으며, 인간은 세계 속에 몸으로의 육체적 참여를 함으로써 정신과 영혼의 인지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한편 영혼과 몸을 주체와 대상의 문제로 상정해 볼 때 영혼과 몸은 다같이 대상의 차원, 객관화의 차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정신'이라고 함은 인간의 주관성으로부터 객관성의 차원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지각할 수 있는 방식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정신이란 용어는 인간이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사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³⁾ 정신이란 인간의 뇌가 작용하는 방식이며 뇌를 통해 전형적인 인간이 되는 방식이 이루어진다. 인간(나)이 종교, 언어, 신화 및 도덕적 자의식등을 통해 스스로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볼 때, 인간이란 존재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은 '정신'이란 말로 대체시킬 수 있다. '나'가 주체의 측면이라면 정신은 보다 넓은 행동 가능성의 영역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사람 속에서나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인간이 주변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그와 상관관계 가운데서 스스로 위치를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신은 인간의 행동의 '장'(場)이고, '나'라는 존재의 현현이다.

영혼과 몸은 모델로 인정되지만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이 두 측면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영혼은 몸에, 몸은 영혼에 상호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정신은 인간행동의 장이기에 항상 변모하며, 언어나 문화, 생활방식 등의 주변세계와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인간의 몸의 긍정과 부정의 한계

인간의 몸에 대한 전제는 세계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의 실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긍정론이 전개되지만 세계의 실재, 체화된 삶을 부정하는 사색적, 탈속적 삶의 전통에

3) C.A. van Peursen, 앞의 책, pp.149-173 참조.

서는 몸에 대한 경멸과 부정의 태도로 치달게 된다.⁴⁾

초월적 실재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공허하며 환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체화된 삶은 단지 착각이며 허상 내지는 가상일 뿐이다. 세속적 행위를 통한 즐거움의 추구는 무의미한 것이다. 최고의 이상은 인간의 경험적 존재상태를 초월하는 것이며 수행과 무욕, 무위의 존재방식이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 된다. 특히 불교에서는 영원불변의 실체는 없으며 무상과 무아의 경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교의를 내세운다. 몸은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무상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모두가 허망하며 허상일 뿐이다. 몸은 업의 결과로 생겨나며 근본적으로 유한하며 고통의 원인이다. 몸은 상처 투성이의 한 무더기에 불과하고, 온갖 질병과 부박한 사념의 축적일 따름이다. 궁극적으로 몸은 사악한 것이며,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는 경지는 몸과 물질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육체적 해방은 인간 삶의 가장 지고한 목표이다.

데카르트적 이원론으로 보는 경우에도 몸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동물적인 것, 유혹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진정한 자아와는 분리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과적으로 몸은 정신의 자기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폄하되었다.⁵⁾

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반해 세계와 체화된 삶을 긍정하는 사상이 있다.⁶⁾ 이는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인간의 욕망과 행위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그 행위의 도구로써 몸이 중요시되며 세속에서의 종교적, 사회적 의무가 중요한 덕목이 된다.⁷⁾ ‘차르바카’와 같은 학파에서는 오직 물질만이 유일한 근본의 실재라고 인식한다. 우리의 존재는 물질의

4)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한길사, 1999), pp.35-64 참조.

5) Susan Bordo, *Unbearable Weight :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6) 인도의 사상은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통사상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외도의 사상이 있다. 진자는 샹키야, 요가, 나야야 등이 있고, 후자는 불교, 자이나교, 차르바카 등이 있다.

7) 이거룡 외, 위의 책, pp.37-64 참조.

몸에 대한 긍정론은 인도철학사에서 베다(Veda)로 시작되는 ‘바라문’ 전통을 형성하였으며 제의주의적인 종교와 후기의 유신론적인 힌두교 전통으로 나타났다. 정통 인도사상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차르바카와 같이 극단적인 유물론적 입장에서 몸의 가치를 주장하는 학파도 있다.

하찮은 변종에 불과하며 의식은 물질적 몸의 해체와 더불어 사라진다. 인간이 사후에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다. 인간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금 여기의 삶에서 최대의 쾌락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전제이다.

몸은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며 신성성은 오직 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실현가능하다. 몸의 긍정은 몸이 지니는 욕망에 대한 긍정을 의미하며 욕망은 해탈에 이르는 근거가 된다. 몸의 욕구를 억제함이 아니라 깊이 성찰함으로써 심오한 정신적 체험의 세계에 이를 수가 있다.

몸에 대한 긍정은 여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 여성은 우주의 에너지이며 만유의 생성력이라는 것이다.⁸⁾ 이 때 여성은 '성력' 그 자체이며 신적인 창조력으로 간주됨으로써 남성적 원리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몸에 대한 부정론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연결되며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로 전락된다. 여성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며 해탈에 이르는 중대한 장애물로 나락하게 되는 것이다.

몸의 욕망이 긍정되고 여성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 남녀의 성교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우주적 여성원리와와의 합일을 의미하게 된다. 남녀의 성교는 거룩한 존재와의 합일이며 거룩한 제사로 고양된다. 성교는 영적체험을 위한 최상의 차원으로 상승하는 제의의식이 된다. 탄트라 종교 전통에서 여자가 중요한 것은 몸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몸은 해탈을 위한 도구로 가능해진다.⁹⁾

베를로 폰티도 몸의 문제를 오로지 물리적 사물로서 받아 들일 수는 없다고

8) 후기 힌두교에서 탄트라 전통이 성행하면서 여성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여성을 근본물질인 '프라크리티'로 보는 시각이다. 여성은 여성적 활동원리인 샹티의 화신이라고 본다.

9) 이러한 현상은 박상룡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창녀의 아들로서 비천하게 태어난 주인공은 독도의 길에 나서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 우주의 근원적 이치와 생명의 본질을 깨우치려고 고뇌하는 주인공이 마침내 독도의 길에 나서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독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간의 성교를 우주의 합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사랑의 합일로 남성과 여성의 상호교제가 가능한 것으로 승화 시키고 있는 것은 몸과 영혼의 개응적 질서 또는 남성과 여성의 위계질서들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였다. 몸은 마음 혹은 의식의 ‘몸화’로 보아야 하며, 인간의 몸에 의해서만 나에 대한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몸이란 단순히 신체의 개념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나 정신 그 자체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⁰⁾

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명하여 몸을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자 했던 부정론이나, 인간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지금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최대의 쾌락 성취로 보고 몸에 대한 긍정의 시선을 보내는 논리 또한 그 개별적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물론이려니와 인간은 과연 죽어서 영혼의 세계에 거처하고 만세를 떠돌며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는 인간이 이승에서의 수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즈음에 육신에서 혼이 떠나가게 됨을 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초혼’이나 ‘혼백 모시기’의 엄숙한 의식을 통해 우리 나라의 상례(喪禮)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 삶과 죽음, 영혼과 몸, 형체를 가진 살아서의 육신이나 죽어서 혼신으로서의 혼백이 된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열을 논할 수 없이 소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습속이라 할 것이다.¹¹⁾ 또한 영혼의 불멸설을 믿는 인간에게 영혼의 세계는 무엇이며 과연 실증적인가 하는 의문이 명쾌한 답변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소설 속에서 형상되는 영혼과 몸은 어떠한가? 소설은 인간의 몸을 무엇으로 해명하며 인간의 삶에서 몸은 영혼과 어떻게 교감하는 실체인가? 몸은 과연 영혼이 참된 거처를 향하여 상승하는 궁극적인 출발점인가? 아니면 정신의 자기 실현을 저해하는 존재인가? 또는 권력의 피억압 공간이라는 탈근대적 시각만이 최상의 견해인가? 보는 것, 듣는 것, 성, 몸은 인간실존의 통로이며 수단이라고 하여 몸을 실존의 현실성이라고 했던 실존주의자들의 철학에 경도해야 하는 것인가?¹²⁾

이러한 것들에 깊은 의문을 던지며 그 첫째 단계로 구효서의 소설 『비밀의

10) 리처드 M. 자너, 『신체의 현상학』(최경호 옮김, 인간사랑, 1994), pp.202-263.

11) 최명희, 『혼불』(3)-(4)(한길사, 1996)

12) 리처드 M. 자너, 위의 책, pp.202-302 참조.

문』에 나타나는 몸 또는 육체의 문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비밀의 문』(구효서)의 ‘몸’과 비밀의 회로

구효서의 소설 『비밀의 문』은 소설의 구도 자체가 ‘비밀의 조직’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이 소설은 고대 인도의 ‘아소카 왕’(아육왕)에 대한 이야기를 번역하는 문장(아육왕상전)과, 이를 번역하는 가운데서 최윤석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견해를 기록한 부분, 그리고 류인범이라는 젊은 소설가가 ‘아육왕상전’과 최윤석에 대한 자신의 견해, 그리고 류인범 자신을 싸고 도는 갖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뒤섞여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와 편집, 첨삭을 하고 자신의 언급을 첨가하면서 『비밀의 문』이라는 소설 전체를 이끌어 가는 소설가의 내레이션을 간간이 삽입되어 있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소설의 후반부에 도달하기까지 작품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3.1. ‘아육왕 상전’과 ‘몸’의 사물화

고대 인도의 아소카 왕이라고 하면 불교를 숭상하고 많은 사찰과 탑을 지었으며 ‘성왕’이라고 회자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회자’라고 하는 비밀의 집단에서는 아소카 왕에 대한 전혀 새로운 기록을 발견하고 이를 번역하는 일을 비밀리에 추진하게 된다. 아소카는 성왕이 아니라 극히 비천하고 음탕했던 어미에게서 태어난 왕의 서자로서 그러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열등의식이 강했을 뿐 아니라 외모마저 극악한 추남이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외면 당하고 버림 받았던 유년시절의 처절한 열패의식이 그의 성격을 거칠게 만들었다. 그는 부왕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쟁터에서만 청년시절을 보냈으며 그로 인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극악한 인간으로 만들어졌다. 아소카 군대의 전투는 피비린내 나는 광란의 축제였으며 그것을 즐기는 쾌락의 극단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아소카는 세력을 확충시키는데 전력투구했

으며 마침내 부왕을 살해하고 아흔 아홉의 형제들을 도조리 죽이고 5백여 명의 신료들을 꼬챙이로 찔러 죽인 다음 왕이 되었다.

아소카는 왕이 되고도 사람 죽이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인간'이란 '몸의 덩어리'에 불과했다. 인간의 몸에 내재하는 그 어떤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소카는 인간이란 몸의 덩어리를 처절히 분쇄하는 잔혹성의 행위자일 따름이었다. 전쟁터에서는 적병의 몸을 갈갈이 분해하여서 잔인한 방법으로 찢르고 자른다. 여자는 약탈 후 처참하게 죽이고, 그 성기들을 도려내는 잔혹행위를 한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어야 할 몸의 소유자일 뿐이다. 그에게는 몸으로 느끼는 정욕이나 성욕 따위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욕정이나 성욕은 그 자신의 끝없는 열패의식을 달랠 시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그는 인간의 몸을 통하여 그의 비천한 출신을 비웃는 모든 것들에게 보복하려는 집념으로만 가득 찼다. 그 어떤 것도 그의 복수심을 만족시킬 만한 대상은 없었다. 오직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몸에 잔혹한 가학을 함으로써만 매순간마다 쾌락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소카 왕에게 있어 자신의 몸은 타인의 몸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하여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였다.¹³⁾ 권력이나 왕권은 대상화 된 타자의 몸을 파괴하고 잔학한 가해를 가할 수 있는 힘 내지는 도구였다. 그에게 거역하는 자에게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처참하게 몸의 부분들을 후비어 찢르고, 잘라서 죽

13) 朴異汶, 『현상학과 분석철학』(일조각, 1977), pp.110-148.

그는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의 실존주의를 설명한다. 사르트르는 죽자와 대자의 관계로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순된 두 가지 욕망을 이야기한다. 인간은 죽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곧 충족되어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죽자적 존재이고 싶어한다. 그와 동시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끝없이 욕망하는 대자적 존재이다. 인간이 대자로서 남아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충족된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나는 대자로서 남아 있고 타인은 죽자로서 나타난다. 대자와 죽자의 문제를 나의 위치에서 볼 때 타인은 나의 위협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싸움과 갈등의 관계이며 타인은 나의 위협과 지옥이 된다. 구효서 『비밀의 문』에 등장하는 아소카왕의 타인의 몸에 대한 완벽한 적대 의식과 보복의식이 사르트르의 타자의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타자를 철저히 보복의 대상으로서 사물화하는 아소카왕의 행태는 근원적으로 타자에 대한 적대 의식이 깊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 버린다.

아소카는 당장 채녀들을 아소카나무 정원에 집합시키라 명령했다. 아소카 나무가 섰던 자리에 두 길이 넘는 구덩이를 파게 하고 채녀들의 옷을 몽땅 벗겼다. //아소카는 떨어져 시든 아소카꽃을 주워, 겁에 질려 있는 서른두 명의 채녀의 푸른 입 속에다 손수 일일이 처넣었다. //채녀들의 손목과 발목은 단단히 포박되었다. 구덩이 안에서는 기름 부은 불길의 환한 타오름이. //채녀들은 둥근 구덩이 주위에 등글게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환한 타오르는 구덩이 속의 불길을 바라보며. //아소카는 그녀들의 등뒤를 천천히 돌다가, 아무나, 발길로 차서 불구덩이 속으로 떠밀었다. 언제 누구의 차례가 될지 몰랐다. 싯벨전 불길 속으로 거꾸로 처박히는 여체를 보면서 아소카는 무슨 파충류처럼, 키키키키 하고 웃었다. //입 안에는 아소카나무의 시든 꽃잎과 이런저런 잡풀들로 가득 차 있어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채녀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구효서, 『비밀의 문』 1, pp. 305-6

이것은 아소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던 나무의 꽃잎을, 그의 잠자리 시중을 들던 채녀들이 다 따버렸다는 이유로, 서른두 명의 여자들을 나체로 만 들고 포박하여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밀어 넣어 버리는 장면이다. 평소에 채녀들은 그를 피했고, 그가 안아도 웃을 줄 몰랐다. 간책되지 않기를 원했고, 그가 듣지 않는 곳에서 그를 욕했다. 추하고, 더럽고, 소름끼치는 꼴상과 피부라고 왕을 비웃었다. 이 사건 역시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의 누적된 열등감이 아소카 꽃나무로 인해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소카에게 인간의 몸은 그 잔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사물에 불과했다.

그러한 왕이 불교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왕의 잔인성을 호도하고 절묘한 방법으로 승가 내의 분열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백성들의 추앙심을 사라지게 하자는 책략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왕에게 등을 돌렸던 백성들의 숭앙심을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들로 씌어진 ‘아육왕상전’이란 회본을, ‘회좌’라고 일컫는 비밀집단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최윤석이라는 청년이 연루된다. 최윤석은 젊은 소설가 류인범의 친구였으며, 우연히 찾아 든 절에서 아육왕상전을 번역하는 ‘성법스님’을 만나게 된다. 그로 인해 그 번역문을 다듬고 정리해 주게 되며, 그러한 계기로 인해 그 비밀집단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비밀집단에 빠져들게 된 최윤석이 행방불명이 되자 최윤석의 여동생(해주)을 사랑하였던 류인범은 해주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친구 최윤석을 찾아 나선다.

3.2. 비밀집단 ‘회좌’의 ‘소마’와 집단난교

성의 변태적 행위의 발단은 류인범이라는 젊은 소설가가 여자 친구 ‘정승연’이라는 여자와 성결합을 하는 부분에서 일어난 현상에서 비롯한다. 최윤석을 찾아 나선 류인범이 ‘옥천사’라는 절에 머물고 있었다. 정승연은 류인범을 찾아왔고, 그들은 성의 결합을 하게 된다. 정승연이 행하는 해괴한 행위는 류인범 자신이 마음껏 능멸된 느낌으로 끌고 간다. 그것은 섹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파괴요 테러였으며 무자비한 유린이며 노략이라는 느낌으로 그를 속수무책 몰고 가는 것이었다. 류인범은 ‘참을 수 없는 냄새와 기분 나쁜 끈적거림, 그리고 커다란 비밀과 음모가 숨어 있을 듯한 어둠 속에다 나는 내 육신을 내던져 놓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녀와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고 증거하는 건 냄새뿐만이 아니었다. 환영처럼 떠오르는 이미지들. 내 세계, 혹은 내 정신의 영토가 뭔가에 의해 초도화된 풍경들. // (. . .) 내 육신은 그 땅 위에 홀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스런 평온함. 뭔가에 의해 불가항력의 도저한 힘이 나를 강제로 정화시켜 버린 듯한, 그래서 체념과 포기가 유일한 안락으로 여겨지는, 그런…… 기억보다 더 선명하게 각인된 이미지들.

— 구효서, 『비밀의 문』 1, pp. 293-5

류인범은 정승연이라는 여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 정승연의 평소의 단정한 옷매무새, 조용한 몸가짐. 그런 것들과 정승연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정승연을 떠받치고 있을 것 같은 도저한 힘의 위세를 감지했다. 류인범 자신은 정승연과 섹스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건 섹스가 아니라 매우 혼몽스럽고 숨막히는 어떤 통과제 의와도 같은 것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어떤 이상스런 평온함과 뭔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끌려 가는 듯한, 그러면서도 체념과 포기와 함께 느끼는 절묘한 안락함의 힘. 그것은 정승연을 에워싸고 떠받치고 있는 어떤 절대적 힘

에 의해 형성되는 느낌일 것이라고, 류인범은 생각했다. 며칠 후 류인범은 정승연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미처 꺼놓지 않은 PC의 화면에서 이상한 통신내용을 읽게 된다. 정승연의 ID를 몰래 기억하고 집으로 온 다음 류인범은 자신의 PC에서 계속 그 통신내용을 추적한다. 류인범은 마침내 정승연이 어떤 비밀집단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친구 최윤석이 잠적된 일들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예감이 든다. 정승연이 회좌의 집단원이었다는 확신을 얻고 류인범은 자신도 회좌의 단원에 입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그 얼굴없는 발신자에게 보낸다. 마침내 류인범에게도 회좌모임의 소식을 알리는 통신이 오고, 류인범은 회좌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그는 회좌의 실체를 찾는 일에 총력을 집중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탄트라 종교에서는 몸을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였다. 신성은 몸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며 몸의 긍정은 오직 몸이 지니는 욕망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욕망은 해탈에 이르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비밀의 문』은 ‘회좌’라는 비밀집단의 집단난교를 통해 몸이 인간의 영혼을 신성하게 하는 거룩한 사다리가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집단난교란 상대를 구분하지 않고 매우 어지럽게 육체를 공유함으로써 나와 나 사이의 욕망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성적 교섭이 즐겁고 황홀한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들 회좌들에게는 쾌락이나 즐거움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회좌’라고 함은 무릎을 맞대고 앉는다는 뜻으로, ‘비밀의 회좌’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었다. 비밀의 회좌란 오의서(奧醫書)나 비교(秘敎)라 번역되기도 하는 ‘우파니샤드’의 뜻이었고 ‘현신적으로 곁에 앉는다’란 뜻도 있다. 회좌의 집단들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을 만큼 은밀함과 비밀스러움이 있었으며 그들만이 다루어야 할 말씀이나 진리가 있었다. 샅된 무리들의 접근을 막고 순수한 열정으로 교감하고 전수되어야 할 소중한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위해 그들은 무릎을 맞대고 경건하게 앉아 모임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저들이 주기적으로 집단환각에 빠져 정신을 잃고 광란을 벌이는 까닭은, 거듭 말하지만, 죽기 위해서였다. //내겐 그렇게 보였다. 그들은 왜 죽기를 원했던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개체로 태어나

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회자란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던가. //물론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강력한 환각물질을 복용하고 정신을 잃었을 뿐이었다. 실질적 죽음을 대신한 형식적 죽음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냥 정신을 잃을 것이지 왜 광란까지 벌이는 것일까. 그것도 하필 불결하기 짝이 없고 패덕패륜한 변태적 집단 성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늘 가운데 푸르게 떠 있던 보름달에서 그들 행위의 상징성을 간신히 끌어 낼 수 있었다. //달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 여자와 물로 상징되어 온 대상이었다. 보름달이 뜰 무렵에 시작된 그들의 회작가 보름달이 질 무렵에 끝나던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환각의식은 <물에 잠기는 의식>에 다름 아니었다. (. . .) 물로 상징되는 보름달이 온 대지를 비추는 동안, 그들은 집단적 몰아상태에 빠짐으로써 푸르른 해수(海水)와도 같은 양수(羊水) 속으로 가뭇없이 잠기는 태아의 조건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그들은 고통스럽게 과거의 기억과 의식과 원한과 언어와 기술과 신앙과 지식 따위를 몽땅 물에 씻듯 폐기해 버리고, 다음날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순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 구효서, 『비밀의 문』 2, pp.223-224

비밀집단 회자들은 달이 떠오름과 동시에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동굴로 들어간다. 그들은 끊임없이 환각물질을 복용하고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집단 혼음이 이루어 진다. 그들은 환각상태에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토사물과 분비물들로 더럽혀 지며 자해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달이 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입 속으로 배뇨행위를 하는 등 혼잡하고 광란에 가까운 성행위의 막바지에 오른다. 이튿날 오전이 되면 그들은 허탈하고 힘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무언가에 정화되었다는 기분으로 숙취에서 갠 듯한 표정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성행위를 통해 물에 온몸을 담갔다가 떠오름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믿는다. 그들은 영적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음의 경지를 겪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몸’의 문제가 ‘성’의 문제로 귀결됨은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몸의 개념은 영혼과 몸을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몸과 영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위라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여기서 몸을 논한다 함은 영혼과 분리되지 아니 한 ‘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찌 하였건 몸의 문제는 성의 논리와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몸을 논할 때 인간의 성행위의 이야기로 귀결됨이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쾌락의 욕망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구효서의 『비밀의 문』의 경우, 성은 보편적 의미의 쾌락이나 도락이 아니다. 그들의 성은 변태적 성행위를 통해 대리 죽음을 겪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려는 제의식이며 엄청난 통과제의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밀의 문』에서는 탄트라적 사상이 팽배해 있다. 여기서 인간은 여성/남성의 몸으로 구분되지 아니한다. 오직 인간의 몸을 초극하고 해탈함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있을 수 있다는 신념에 차 있는 것이다. 몸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몸을 도구로 사용하여 몸을 완벽하게 초토화함으로써만이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 완벽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

몸을 단지 환영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상카라의 경우에는 살아서도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본다. 해탈은 사후의 체험일 필요는 없으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해탈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것은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다. 실재하는 것으로 보던 몸과 세계를 단지 환영에 불과한 것으로 깨닫는 순간에 해탈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¹⁴⁾

회좌들의 경우에도 몸은 환영에 불과할 수 있다. 몸은 해탈의 도구이며, 해탈은 반드시 사후의 체험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들이 몸으로의 대리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회열을 느낄 때 그것은 해탈의 경지와 상응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들이 ‘소마’라는 환각약물을 마신 상태에서 느끼는 환각의 세계는, 몸과 세계가 단지 환영에 불과한 것으로 감지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깨달음의 순간에 해탈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회좌들은 그들 상호간에 어떠한 실제적 대면도 없다. 그들은 PC로 모임의 장소를 알릴 뿐 서로 대면할 수 없으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언어도, 의상도, 서로 간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원시상태를 추구하는 그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몸’으로의 표정과 동작, 호흡, 접촉이 있을 뿐이었다. 인간의 몸은 본래 우주와 일체였는데, 의식이 지나치게 작용하여 분명을 낳았고 심신을 우주와 분리시켰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 간격을 없애고 조화를 이루면 건강은 물론 자기존재가 우주와 하나로 되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원시를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잊어 버렸던 영혼의 고향에 다시

14) 이겨룡 외, 앞의 책, p. 54 참조.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술한 규범과 도덕 따위를 버림으로써 시원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섹스는 번성과 생육의 본능이기 때문에 원초로 돌아가는 행위여야 한다. 통음난무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대리 경험하는 것이며 소멸과 생성의 대리 경험으로 자연과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인간의 무상한 이성이 이루어 놓은 역사와 문명이라는 신기루로부터 이탈하여 신화와 섭리와 자연 우주에 포괄되는 성스럽고도 황홀한 경험이며 자연을 파괴하고 해체하여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자연 질서, 신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몸이 가지는 사회적·문명적 개념을 박멸시키고 초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환각제에 의해 자신의 몸이 파괴되는 것을 기꺼운 희생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몸을 버려 집단의 원초적 정서가 복원되고 정화, 재충전됨으로써 값진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환각에 다다른 행위를 수행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몸이 죽으면서 집단의 생명력으로 재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믿음을 완성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비밀의 문』의 비밀조직은 그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고, 몸으로의 체험을 통해 혁명을 시도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언어의 성능을 파괴하고 통음난교를 통해 기존의 질서를 분쇄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역사, 기존의 질서와 문화라는 일체의 절대정신을¹⁵⁾ 전복하려는 것이다.

4. 파괴의 이데올로기와 몸

소마란 인도인이 마시던 일종의 몰약이며 신약이다. 이것은 파괴의 신인 ‘시바’와 동음동의어이며 이것을 마심으로써 소멸과 파괴의 경지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소멸·파괴라는 것은 새로운 장르를 위한 자기 희생이며 동시에 창조의 근본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화의 집단을 이끌고 나

15) C.A. Peursen, 앞의 책.

가는 이른바 ‘지중자’는 지상사회에 대한 원한과 보복, 전복의 의지만을 키워 나가는 보이지 않는 그들 속의 파괴자일 뿐이었다. 그들의 소마는 새로운 창조와 탄생으로 이어지는 초월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인간의 몸을 파괴의 이데올로기 실현으로 희생시키는 잔혹성에 머물게 했던 것이다.

구효서의 『비밀의 문』은 복잡한 서사의 회로를 통해 네 겹의 다층적 서술 방식으로 형성된 소설이다. 특히 ‘아육왕상전’이란 부분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던 작가였다. 기존의 역사, 기존의 문화 속에 형성되었던 ‘아소카’왕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켰던 거창한 내용이었으며 애정을 쏟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결말에 가서는 그것이 역사적 고증에 입각한 기록이 아니고 한갓 소설에 불과했다고 반복해 버린다. ‘아육왕상전’의 번역과 출간을 싸고 도는 회좌들과, 그 회좌들의 주변에서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몸을 바쳐 죽거나, 또는 인생의 회로를 변경했던 것이 이 소설의 내용들이다. 그들의 행위들을 뒤위로 돌려 버리고, 최윤석을 가명의 인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작가 구효서는 이 작품에서 소설의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었으며 인간의 무엇을 전드리고자 했인가?

종교란 한갓 이데올로기의 허상이라는 것, 그리고 정치라는 권력 이데올로기, 그 접점에서 몸을 찾아내고 몸을 도구화, 사물화하는 헛된 환영들을 비아냥 거리겠다는 의도인가?

회좌라는 비밀집단은 남녀의 성교를 단순히 양성의 결합을 벗어난 거룩한 존재와의 합일이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그것을 거룩한 제사로 인정함으로써 해탈의 수단이며 최고 차원의 영적체험을 위한 통로로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대리 죽음의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생성과 생명의 창조를 체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몸이 인간의 영적체험의 모든 것을 함섭하고 있다는 논리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은 환각상태에서 행해진다는 것이 중요한 모순논리로 남는다. 또한 회좌라는 비밀집단을 이끌고 나가는 종지회자로서의 ‘지중자’란, 세상에 대한 원한과 보복심리로 팽배해 있으면서 기존질서의 전복을 시도하는 또 하나의 다른 지배이데올로기이다. 전복되고 파괴된 질서는 또 하나의 권력이며, 이 때 몸은 권력의 피억압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는 도구로 남을 뿐이다.

작가가 소설의 말미 부분에서 최윤석의 『비밀의 문』이라는 소설을 등장시켜서 언어의 순수성과 문학과와의 상관질서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력한 도피 행위이다.

이제 최윤석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언어가 불순한 것들과의 근친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고독한 외자의 지위에 다시 올라, 오로지 문학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나타내는 장관을 목격하는 일일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비장해진 기분에 사무쳐 그의 소설 원고를 굽어 보았다. 거기에는 <비밀의 문>이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

— 구효서, 『비밀의 문』 2, p.331

이것은 이제까지 독자를 이끌고 나왔던 작가의 소설적 언어들이 모두 무화되는 순간임을 감지하게 한다. 작가가 소설을 쓰고 있었던 모든 언어들은, ‘아육왕상전’의 번역문에 몸을 던져 운문하던 최윤석이 새삼스럽게 들고 나오는 <비밀의 문>이라는 자작 소설을 단념으로써 허망한 영상으로 날아가 버릴 위기를 만난다. 그것은 소설이라는 장르를 파괴 시킬 수 있는 언어적 이데올로기의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 속에서 전체 소설은 ‘몸’을 피억압 공간에 남겨 둔 채 영혼과 몸, 그리고 정신의 문제들을 일체의 환영과 허상으로 치부하게 하는, 그러한 황당함과 경악을 느끼게 할 뿐이다.

참고문헌

- 박이문, 『현상학과 분석철학』(일조각, 1977)
-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한길사, 1999)
- C.A.van Peursen, *Body, Soul, Sprit*(Oxford Univ. Press, 1966, 손봉호·강영한 옮김, 서광사, 1985)
- 리차드 M. 자너, 『신체의 현상학』(최경호 옮김, 인간사랑, 1994)
- Susan Bordo, *Unbearable Weight :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Abstract

Koo, Hyo-seo 「A Secret Gate」 : A Transcendence of Extinction and Creation and a Body

Kim Jung-Ja

How does a novel depict the body & soul? How is a human body explained in a novel and how does the body respond to its soul in a real human life form?

Casting a deep insight into these questions, this essay is trying to explore for the question of the body revealed in the novel, *A Secret Gate* written by Koo, Hyo-seo.

In the novel, a secret clan uses their body as a tool for embodying their belief and tries to achieve a revolution through such bodily experiences. They try to destroy the function of language, and they try to destruct existing orders through carousals and sexual messes. By doing so, they try to overturn all existing, absolute spirits such as history, systems, and cultures.

But, at the end of the novel, the advent of another *A Secret Gate*, a novel-in-novel makes the reader to become perplexed. All sentences and contexts the author has used to create the novel are in danger of futile extinction when the other *A Secret Novel* written by Choi, Yoon-suk who devotedly paraphrased a translation version of *Ayukwangsangjon* in the novel appears. This is a violence of lingual ideology that can destroy the genre of the novel. In the midst of such violence, the novel compels readers to feel a sense of absurdness while keeping the soul & body and all spiritual matters in the sphere of illusions and virtual images and the body shut in a space of suppression.